

“외아들 아끼듯 자비심 내라”



이웃돕기

매년 반복되는 각종 재해의 사건사고로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초 내린 집중 폭우로 문산, 김포, 동두천 등 경기 일대의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애써 가꾼 농작물이 폭우와 태풍에 쓸려나가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마가 휩쓸고 간 현장에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선 수많은 자원봉사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ARSL나 신문·방송을 통한 성금기탁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도와야 하는지 경전속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것을 관찰하고, 중생이 욕(欲)에 묶여있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오랜 병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선법을 바라지 않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재물의 법 윗음을 관찰하여 그때마다 대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화엄경>

■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일로 친척을 가까이하고 공경해야 한다. 물건을 나누고 쓰고 말을 인자하게 하며, 이익을 같이하고, 속이지 않아야 한다. 이와같이 친척을 공경하고 가까이하면 그들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육방예경>

■ 대승에 이르려면 내가지 일 이 있다. 그것은 보시로 모든 공립한 이를 도와주며, 높고 낮은 이를 차별하여 마음을 두가지로 쓰지 않으며, 무엇을 남에게 주면서 무슨 희망이나 갚음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공덕을 중생에게 두루 베푸는 것이다. <방등경>

■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가지 일로써 알 수 있다. 계를 가지는 바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바른 법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아가와는 마음이 없이 깨끗한 손으로써 널리 보시하고, 보시를 바라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보시하기를 즐기는 것. 이 세가지를 갖추어서야 비로소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아함경>

■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법구경>

조그마한 보시를 하고라도 능히 증상심(增上心)으로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여 가장 수승한 선심을 내어 얻는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면, 그 이익은 다 할때가 없으리라. 만일 향(香) 하나를 보시하더라도 마땅히 이런 뜻을 내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두 가장 좋은 계향(戒香)을 얻고 일체 낙구(樂具)가 구족하여 모두 여의하여지이다.' <방등경>

■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복된 결과가 따르리라.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때 없는 깨끗한 보시를 행하라. 보시를 행하면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기쁨은 거기 있느니라. <집아함 환희경>

■ 대비란, 중생의 귀의할 곳 없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사악한 길에 떨어짐을 관찰하고, 중생이 선근없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긴 생사(生死)에 잠자는

것을 관찰하고, 중생이 욕(欲)에 묶여있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오랜 병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선법을 바라지 않음을 관찰하여 그때마다 대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화엄경>

■ 보살은 이웃들이 온갖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대비심(大悲心)을 일으켜 이렇게 다짐한다. '나는 온 세상의 낯날 이웃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무량겁을 지내면서 그들의 덕을 찬탄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버려두고 모른채하지 않으리라.' 보살은 모든 것이 무아(無我)라고 생각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이웃을 구제하면서 그 일에 몰두하지 않는다. 세상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세상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보살의 집착없는 행이다. <화엄경 심행품>

■ 비록 욕심은 허방하다 해도 오직 은혜로운 보시의 복은 있어 자기를 따르는 양식되나니, 감관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선정을 닦는 공덕을 의지하여 돈이나 재물이나 또 음식을 그 힘 따라 보시하고 잡에서 깨어나면 그것은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니라. <집아함 노사경>

■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든지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겨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스님이 토굴을 보여준다기에 북한산으로 따라 갔다가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본사에 성토성(?) 전화를 걸었다. 내용 인즉, 그 토굴이란 곳에 TV, 냉



한 명 우 (취재 1부 기자)

등 그야말로 웅만한 살림 집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없는 게 없었다는 것이다. 김겨사는 "그러나 수행을 제대로 하는 스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개탄했다. 토굴은 말 그대로 산자락의 자연굴이나 수행을 위해 지은 작은 암자다. 치열한 용맹정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굴에는 수행에 전

토굴의 '별장화'

행장소가 아닌 '별장화' 되어가는 곳이 많아 '토굴'이란 이름을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곳이 많다. 강연도 강릉에 있는 한 토굴은 주방기구를 포함한 각종 살림살이는 물론 필립까지 갖추고 있다고 한다. 경기 남양주 외곽에 위치한 한 토굴은 밥해주는 공양주 보살까지 두고 있고, 심지어는

"누구누구 스님 트들은 출입문이 이태리제 대리석으로 돼 있을 정도로 호화스럽다"는 말도 들린다. 몇 년 전에는 공금형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소적새마을원장 일력의 호화 트들이 공개매 일반에 출격을 준 적도 있다.

전국의 토굴이 다 이렇게 호화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토굴다운 토굴도 많다. 그러나 상당수의 토굴이 스님 개인의 위락시설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토굴을 휴식처로 여겨서도 안되고, 그런 곳이라면 아예 토굴이라고 말해서도 안된다. 토굴은 '생사를 건 정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다. '토굴'에서 진정한 수행에 열심인 스님들에게 누를 끼치는 '가짜 토굴'이 사라지길 바란다. (mwhan@buddhania.com)

열린마당

전국신도회 지도자 수련대회 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10, 11일 대전 유성 호텔 스피어에서 3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와 함께 전국불교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미래의 재가불교 운동은 철저한 불교적 가치관과 보살정신의 실천적으로 그 의지를 모아나가는 데 동감을 표하고 눈 밝은 신도들을 많이 배출해 새

로운 불교신행운동을 펼쳐나가기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도자신의 새신운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정신을 사회에 구현하는 포교 봉사 사회복지 등의 교화정신을 배양해야 하며, 신도운동의 자율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생활속에서 불교의 목적인 자각을 통한 인격완성과 타락을 통한 정토구현에 매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음은 세미나 주제발표 내용. <편집자 주>

“불교적 가치관-보살정신 실천”

정병조 <동국대 교수·국민윤리학>

미래의 한국불교는 더 이상 문인과 안일, 관공차원의 불교이해 수준에 머물 수 없게 되어 있다. 미래의 재가불교 운동은 철저한 불교적 가치관과 보살정신의 실천적으로 그 의지를 품어내야 한다.

출가승이 도덕성 청정성으로 사회의 스승이 될 때 재가자들은 오늘의 사회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불교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불교의 사회화는 외형적 성장보다 내면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우선 생활환경을 보다 친화적으로 바꾸어 지역별로 그 일대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 불교문화강좌와 어린이 교실, 주부클럽 운영, 도서관 설립 등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여름철 두 달을 개방하도록 하고, 주변의 각종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신행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화운동을 펼쳐야 한다.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을 주도하거나 소비자연맹운동, 북한 등 제3세계 포교문제, 중부행정 전산화, 인터넷 포교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미래사회의 불교는 결코 교세를 내세우는 허장성세에 있지 않다. 오히려 부처님이 표방한 진여(眞如)의 세계에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서 있는지를 살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인격완성-정토구현 신도의무”

한정섭 <금강선원 이사장>

초기불교 교단에서는 출가제와 재가제자의 구별이 엄격하여 재가제자는 출가제자를 의호하는 불교신자로서 섭생(攝生)을 본위로 하였으나, 대승불교에 이르면서 일불제자가 되어 바라밀의 실천자로서 대가운동의 선구자가 된다.

불교의 대가운동은 자각각타(自覺覺他)로서 정법에 의한 수행과 교화를 담당하는 운동이다. 신도들은 불교의 목적인 자각을 통한 인격완성과 타락을 통한 정토구현에 매진해야 한다.

신도들은 불법을 호지하여 시간나대로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여 어두운 길에 빛이 되고 힘 없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각기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공동사회의 질서를 지킬 줄 아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불교 운동을 통해 신도들은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각 종단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포교활동을 위해 적극 후원해 주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조계종의 후계정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속에 구현해 참된 신도운동과 포교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즉 평상심 가운데서 의식을 분명히 하고(法會因由分), 선후배의 질서를 지키며(善現起請分), 일체중생을 제도하되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을 내지 말고(大乘正宗分), 색·성·향·미·촉·법에 주착하지 말고 바라밀을 실천(妙行無住分)하는 것이다.



“환경·인권등 대사회활동 전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전국신도회는 지부, 지회의 조직화를 서두르기 보다는 중앙조직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운동, 민족통일운동, 각종 자선사업, 문화재보호운동, 출판홍보사업 등 의미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활동을 전개하기 보다는 불교 내부의 행사에만 치중해 온 것도 국민대중과 불자 모두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회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사업의 전개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을 총재로 추대하는 규정(정관 제13조)을 삭제하고, 일상적인 사업과 관련한 결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 포교활동에만 필요한 상임법사(정관 제7장)와 교육원(정관 제8장) 제도를 없애고, 목적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각 위원회(환경보호·민족통일·인권보호위원회 등)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전국신도회는 전국의 불교신도 전체를 조직화할 필요는 없다. 회원 역시 조계종 신도로 국한할 필요가 없으며 불교신자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단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게끔 교구본사나 사단단위의 신도회는 두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종단 내부 보다는 외부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해 신도회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종무참여 등 재가 자율권 확대”

황진수 <한성대 교수·행정학>

불교신도 조직은 부처님의 법에 따라 보다 심오한 신앙생활을 하고 종단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신도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신도조직은 분업과 통합의 합리적 활동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국단위 조직화에 연평별(어린이, 학생, 청년, 장노년) 지역별 직능별 직종별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도운동의 자율성에 관련된 가능성과 방법론은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재가신도들의 도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스럽고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투명한 원운살림을 위해 사찰재정 공개가 절실하다. 사찰재정 공개는 신도를 시주할 수입에 대해 지출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권을 의미해 스님과 신도간의 불신의 벽을 해소할 수 있다. 신도들은 포교전문가라는 자세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각 사찰에 각종 위원회(사찰운영·교육·포교·재정·법회·성지순례·사회봉사·국제포교·교리강습위원회 등)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사찰은 포교교육기관, 불교와 현실문제를 접목시키는 커리큘럼, 포교기술 및 방법론을 숙지하고 포교전문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신도의 중부행정 참여, 종회의원·호계위원 진출 등 신도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신도자신의 새신운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정신을 사회에 구현하는 포교 봉사 사회복지 등의 교화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충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명 졸업·40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의 법패의식(법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때 법패의식 교육)		
1 학년	1 학기 (16주) ◇ 불교경전의 이해 ◇ 초기불교의 이해	◇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 불교상용 의식	◇ 유식사상
	2 학기 (12주) ◇ 화엄사상 ◇ 구사론(아비달마)	◇ 중구불교의 이해 ◇ 불교상용의식 실습	◇ 비교종교
2 학년	1 학기 (18주) ◇ 부파불교의 이해 ◇ 대승기신론	◇ 밀교학의 이해 ◇ 우리말 불교의식	◇ 반야사상
	2 학기 (12주) ◇ 한국불교의 이해 ◇ 선사사상	◇ 대승불교의 이해 ◇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 천태사상

3. 교수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원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사무과) ※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원주 법운사 (0371)742-2701
▶ 제천 묘장암 (0443)653-3249 ▶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방자치체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